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75호 [루게 제24323호] 주제102(2013)년 10월 2일 (수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

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자!

## 김일성 종합대학에 높이 모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제막식 진행

【평양 10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유서깊은 룡남산과 더불어 주체교육과학의 최고전당으로 빛나는 김일성종합대학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높이 모시었다.

어버이장군의 동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시 원대한 뜻을 안으시고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장군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높이 모심으로써 김일성종합대학은 명실공히 수령님의 대학, 장군님의 대학으로서의 품격을 갖 추고 강성국가건설의 혁명인재육성과 교육과학발전에 쌓아올리신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일수 있게 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에 높이 모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제막식이 대학창립일을 맞으며 10월 1일에 진행되었다.

제막식장은 룡남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이실 맹세를 다지신 그레로부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치시며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온 세상에 떨치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묘의 정으로 뚫어번지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제막식장에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혁명사상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라는 구호들을 드러운 대형기구들이 제막식장 상공에 떠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에 높이 받들어 모시자!》,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들과 《결사옹위》, 《일심단결》이라는 글발들을 드러운 대형기구들이 떠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을 세계를 보라!》라는 구호판들이 제막식장에 세워져있었다.

어버이장군님의 동상광열에는 조선인민군 폭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으며 군가들이 세워져있었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 최봉해동지, 장정남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강석주동지, 김양건동지, 김영일동지, 김영

해동지, 문경덕동지, 조연준동지와 김용진 내각부총리, 당, 정권기관, 성, 중앙기관 일군들,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양시인의 여러 대학 교직원, 학생들, 어버이장군님의 동상을 모시는 사업에 공헌한 단위 일군들과 종업원들, 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근로자들이 제막식에 참가하였다.

제막식이 벗겨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이 찬란한 빛을 뿌리었다. 순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메아리치는 속에 축포가 터져오르고 고무풍선

들이 날아올라 룡남산의 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제막식은 시작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제막을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 최봉해동지, 김기남동지와 태형철 대학총장 겸 고등교육상 이 하였다.

제막포가 벗겨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이 찬란한 빛을 뿌리었다. 순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메아리치는 속에 축포가 터져오르고 고무풍선

들이 날아올라 룡남산의 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이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김일성종합대학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또한 성, 중앙기관, 평양시내 대학, 기

관, 기업소, 공장 그리고 김일성종합대학 대학, 학부들, 외국유학생들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명기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띄여져있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가 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강성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격동적인 시기에 주체교육과학의 최고전당 김일성종합대학에 높이 모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제막식을 성대히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수수한 학생복을 입으신 20대의 젊은 어버이장군님의 태양의 영상을 우러르는 모두의 가슴가슴은 절세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경묘의 정에 넘쳐있었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찌기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날에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조선을 빛내이실 룡남산의 맹세를 안으시고 정력적인 사상리론 활동과 탁월한

령도로 시대와 력사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시었다.

거룩한 혁명생애의 전기간 김일성종합대학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명실공히 수령님의 대학, 당의 대학으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 가도록 이끌어주신 어버이장군님의 크나큰 로고와 심혈,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종합대학은 오늘 명망높은 글자의 대학으로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모신 대학에 어버이장군님의 동상을 함께 모시려는것은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과 졸업생들, 학부형들과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소망이였다.

대학 교직원, 학생들과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충정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발기와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김일성종합대학창립 67돐을 맞으며 혁명사적관을 현대적으로 새롭게 꾸리고 어버이장군님의 혁명사적이 어려웠는 대학전당도서관앞에 장군님의 동상을 최상의 수준에서 정중히 모시도록 하 여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만수대창작사 일군들과 창작가들,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 학부형들과 졸업생들, 군인건설자들, 혁명사적지전설관리국 일군들과 근로자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많은 기관들과 일군들, 인민들이 어버이장군님의 동상을 모시는 사업에 백승같은 충성을 바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신 대학에 어버이장군님의 동상을 높이 모신 뜻깊은 자리에서 전체 교직원, 학생들과 온 나라 천만군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렸으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애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을 세계를 보라!》 숭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골간이 되라!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위대한 당, 김일성조선군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라!》

연설자는 김일성종합대학앞에는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천원명예에 갖든 심오한 뜻을 영원한 과우명으로 삼고 대학의 교육과학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며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군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는데서 제일기수가 되어야 할 무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말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며 대학에 갖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전체 교직원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교육과학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모든 대학생들을 혁명적수령관이 투철하고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골간으로 키워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대학생들이 김정일에국주의로 심장의 피를 끓이신 선군시대의 참된 애국자,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세계적인 인재로 준비하기 위하여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열심히 배운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전체 교직원, 학생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정중하게 모시며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자신들의 충정을 가다듬고 사업하며 생활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모두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후손, 김정일대원수님의 전사, 제자답게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강성국가건설을 매고나갈 혁명인재로 튼튼히 준비하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노래주악으로 제막식은 끝났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대한 해설을 듣고 동상을 돌아보았으며 대학에 새로 꾸린 혁명사적관을 관람 하였다.



# 김일성 종합대학에 높이 모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제막식 진행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아부자**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대통령 무력 총사령관 **쿤락크 에벨레 조나탄** 각하

나는 나이지리아 독립 47주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면서 나라의 사회적안정과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여러 분야에 걸쳐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2(2013)년 9월 28일 평양

---

**가보르네**  
보츠와나 공화국 대통령 **세레체 카마 이안 카마** 각하

나는 보츠와나 독립 47주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2(2013)년 9월 30일 평양

---

**니코시아**  
키프로스 공화국 대통령 **니코스 아나스타시아데스** 각하

나는 키프로스 독립 47주에 즈음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내면서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2(2013)년 10월 1일 평양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앙골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평양 10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가르쳐야

비례주조 앙골라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여기에는 김형준 외무성 부상

과 앙골라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대화를 하였다.

신임장 봉정식에서 김영남 위원장은 김영남 동지에게 가르쳐야 하는 바를 말씀하시었다. 김영남 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대화를 하였다.

신임장 봉정식에서 김영남 위원장은 김영남 동지에게 가르쳐야 하는 바를 말씀하시었다. 김영남 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대화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가는 참관자들 -속사찰혁명사적지에서-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수령님처럼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신 그런 령도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제 66 (1977)년 1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된 어느 한 회의에서 그 해 일용잡화주문목록과 생산계획을 토의할 때였다.

국가계획위원회의 한 책임인원은 어버이수령님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고 해당 부문 일군들도 다 알고있으므로 별책으로 묶은 일용잡화주문목록을 그냥 통과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잡화는 인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데 어떻게 별책으로 설명도 없이 채택할 수 있겠는가, 다른것은 몰라도 잡화란 그렇게 채택할 수 없으니 한 품종도 빼놓지 말고 목록을 그대로 천천히 읽으라고 말씀하시었다.

나라의 한해경제사업을 논하는 습속한 회의장에 일용잡화목록을 읽는 일군의 목소리가 담담히 울렸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오늘 결정으로 채택한 일용잡화생산계획에 대한 집행정형 총화는 앞으로 인민들앞에서 인민의 평가에 기초하여 짓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회의장에 울린 박수소리, 그것은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지니시고 현생애를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위인상을 전하며 오늘날 끝없이 메아리치고있다.

본사기자 백영미

## 첫 여성대의회원이 받아들인 은혜로운 사랑

나라의 주인이 된것이 너무도 대견하시어 회의도중 휴식시간에 친히 그를 불러주시었다.

그가 어린아이들 업고 대회에 왔다는 것을 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 아이가 아들인가, 딸인가, 나이는 몇살이며 잘지는 않는가도 다정히 물어주시었다. 그러시고는 대회장장에 걸려있는 구호도 읽어보게 하시고 글을 배워 쉬운 정치서적들도 읽는다는 그의 말을 들으시고 못대 기뻐하시며 앞으로 공부도 더 잘하고 일도 잘하라고 따뜻이 일러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음성이 귀전에 계속 울려오고 뜨거운 사랑이 끝없이 물결쳐와 그는 온몸을 이룰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나라일로 바쁘신 어버이수령님께서 다음날 또 다시 자기를 만나주시고 다신하신 은정을 돌려주시길은 생각도 하지 못하였다.

이날 회의의 첫 휴식시간에 어떤 딸을 업은 그는 아이가 울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든 조바심을 안고 휴게실 한쪽에 조용히 서있었다.

그런데 어느새 그를 알아보시었는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환하신 미소를 지으시며

## 먼길을 떠나시게 된 사연

1980년대 중엽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장장 6만여리에 달하는 외국방문의 길을 다녀오신 적이 있었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곁사람인 로고로 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시었다.

우리는 오늘 어버이수령님께서 어찌하여 불현하신 몸이심에도 불구하고 떠나신 외국방문의 길을 걸으시였는가에 대한 가슴뜨거운 사연을 여기에 적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뜨거운 인정미와 완강이 검박하고 소탈한 품성을 지니시고 인민들을 땀땀이 대해주고 보살펴 주시었다.》

주제 73 (1984)년 5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군들을 부르시었다.

영문을 모르고 달려온 그들에게 하시는 수령님의 말씀은 너무도 뜻밖이었다.

이제 유럽사회주의나라들을 방문하기 위하여 얼마동안 조국들을 떠나있게 되는데 그동안 잘 지들 말고 일들을 잘해야겠다고 하시는것이였다.

그들은 모두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사실 그 무렵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건강에 무척 마음을 쓰시면서 필요한 대책을 다 취해주시던 때였다.

일군들은 저저마다 위대한 수령님께 이런 외국방문을 꼭 가셔야 하겠는가고 격정어린 말씀을 드려왔다.

년로하신 그이께서 할말이상이나 기차를 타고 수만리 머나먼 외국방문을 다녀오시는것은 너무도 무리하게 느껴졌던것이다.

하지만 일군들의 간청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번에는 가는 길은 인민을 위하여 떠나시는 길이기때문에 자신께서 직접 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는 그전에 자신께서 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 한번 꼭 가보겠다고 약속을 하였는데 그것은 결국 그 나라 인민들과 한 약속이나 같다고, 그런데 가지 않는다면 그 약속을 어기는것이 나 다음이 없다고 하시었다.

일군들은 가슴이 뭉클 젖어들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하기 위해서도 다른 나라들에 가서 그 나라들의 현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도 알아와야 하겠다고 자신께서 꼭 가셔야 할 리유에 대하여 그루를 막아 말씀하시는 것이였다.

본사기자 김명훈

은 사랑에 충정으로 보답할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은정을 받아들인 리선녀동무는 대회를 마치고 돌아온 이후 세 조국건설의 길에서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였으며 인민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꽃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해방전 일제를 반대하여 싸운 리선녀동무의 투쟁자료를 료해하시고 그를 반일애국렬사로 높이 내세워주시었다.

해방전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아오다가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참다운 존엄과 행복을 누리게 된 가슴뜨거운 사연이 어찌 리선녀동무에게만 있었던가.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을 령사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인민대중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주시신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우리 인민 모두가 값있는 삶을 누리고 참다운 행복을 쫓아왔다.

하기에 우리 인민들은 세월이 흐르고 강산이 변하여도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그리워하고있으며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는것이다.

본사기자 정선철

#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경제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사회주의중산경제를 힘있게 벌려 생산을 활성화하고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공화국창건 65

## 9월과 3.4분기인민경제계획 빛나게 수행

올을 뜻깊게 경축한 9월과 3.4분기에 《마식령수도》창조 불길드높이 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높이 세운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 전자공업성에서

전자공업성에서 3.4분기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였다. 평양자동화기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불굴의 정신력으로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면서 배전반과 협동물생산을 높여 마식령스키장과 문수물놀이장 건설장을 비롯한 중요대상들에 성과적으로 보내주었다. 로동자동화기구공장에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현대화에 필요인 열전대, 온도조절기 등 여러종의 자동화기구를 제때에 보장하였으며 새날전기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도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맡겨진 생산과제를 기한전에 수행하였다.

### 식료공업성에서

식료공업성에서 9월과 3.4분기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계획수행기간 선애 평양식료련합기업소, 일음공업관리국, 경성도자기련합기업소 등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월계획과 분기계획수행의 앞장에 섰다. 평양식료련합기업소에서는 간장, 된장, 당과류, 콩우유, 물엿, 청량음료를 비롯한 중요식

발, 국사발을 비롯한 갖가지 도자기류생산계획을 지표별로 수행하였다. 일음공업관리국아래 평양화장품공장에서 생산정성화의 동음을 높이 올려 이달에도 화장품, 세수비누 등 현물계획을 지표별로 수행하였으며 신의주화장품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제품의 질제고에 커다란 관심을 돌려 인민들의 호평받는 화장품을 더 많이 생산하였다. 자강도식료일용공업관리국아래 지방산업공장에서 지방

의 예비와 창발성을 적극 동원하여 간장, 된장, 학습장, 발매비누, 발사발 등 1차소비품생산계획을 지표별로 수행함으로써 도안의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계획수행기간 룡양산물공공장, 선홍식료공장, 강계로도솔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부담정신을 지니고 근로자들의 날로 높아가는 식료품에 대한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였다.

### 채취기계공업지도국에서

채취기계공업지도국에서 9월과 3.4분기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였다. 계획수행기간 지도국의 일군들은 각지 금속공업의 주제화 실현에 적극 이바지할 설비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도록 하는 데 모를 바고 경제작전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라남관광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간지게 하고 공간 면적을 잘 맞출면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줄 대상설비생산을 일제계획대로 내밀었다.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지난 9월말까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 보내줄 대형물문련양기계가 성과적으로 계속됨으로써 발전소완공의 날을 앞당길수 있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안주뿔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생산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갈 불타는 열의

### 잠업비단지도국에서

잠업비단지도국에서 3.4분기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계획수행기간 인민생활향상의 전초선을 지켜섰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펼쳐나선 지도국아래

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안고 생산정성화의 동음을 높이 올렸다. 이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필요한 기료품들을 자체로 마련하는 한편 앞선 작업방법과 가치있는 기술혁신인들을 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 비단실과 솜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함흥제사공장과 강서제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마식령수도》창조에 전진의 보폭을 맞추며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켜올려 분기간 맡겨진 지표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다. 박천전지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인민들의 수요가 높은 담요생산을 늘이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련관단위 과학자, 기술자들의 긴밀한

### 흑색광업관리국에서

금속공업성 흑색광업관리국에서 9월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다. 계획수행기간 관리국에서는 올해신년사에 제시된 과업편철에 펼쳐나선 대중의 양양열의에 맞게 생산조직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특히 생산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매개 단위들의 구체적인 조건에 맞는 경제작전을 펼치였다. 관리국적인 전투계획에 따라 국장, 기사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중요생산단위들을 맡고 현지에 내려가 화신의 기관차가 되어 달려나선 결연 문제들을 앞장서 풀어나갔다. 관리국아래 각지 단위들에서 생산정성화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철광석생산의 큰 몫을 맡은 룡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은 박토처리와 심부채굴장착

###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혁신정성화가 이룩되었다. 현지에서 전해진 소식에 의하여 이곳 일군들과 광부들이

련계밀에 새로 밀려선 비로도생산공정의 생활력을 높임없이 발휘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였다. 년별전지공장의 로동계급도 일터마다에서 사회주의중산경제를 힘있게 벌리고 서로 돕고 이르는 집단주의미풍을 높이 발휘하면서 다색단, 메트르모신 등 맡겨진 생산계획을 지표별로 완수하였다. 계획수행기간 금야전지공장에서 높은 생산정성이 이룩되었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교대간 편제를 짜고들고 공정간 맞물림을 잘하여 생산을 일제계획대로 중단없이 내밀었다. 덕천전지공장을 비롯한 지도국아래 다른 공장들에서도 힘찬 증산투쟁을 벌려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 라원기계련합기업소에서

라원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공화국창건 65돐을 자랑한 로력정성과 빛내인 그 기세로 힘차게 달려 9월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다. 계획수행기간 이곳 로동계급은 유압식굴착기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하였으며 탄광, 광산을 비롯한 중요대상들에 각종 굴착기부속품들을 계획대로 원만히 생산보장하였다. 련합기업소당조직에서는 생산대중이 감동되어 주주의 가슴에 소중히 간직하고 생활할 중에 철저히 구현해나가기 위하여 위한 선동사업을 혁신적으로 활발히 벌리었다. 소재보장을 맡은 신포항주철공장에서는 설비들의 가동률을 최대한 높여 유압뿔프소재를 비롯한 주물소재생산을 제때에 보장하였다. 현대적인 기계들로 장비된 유압기구장에서는 기계공들의

2.4분기에 비해 1.4배나 높은 3.4분기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 철강제생산으로 세차게 뛰어넘는 철의 기지들이 많은 량의 철정광이 보내져왔다. 계획수행기간 련합기업소의 당, 행정일군들은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올해 전투를 승리적으로 계속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진취적인 일본새를 발휘하였다. 특히 설비관리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광부들의 정성력을 총발동하는 사업을 방법론있게 짜고들었다. 일터마다에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로전, 선광부문의 광부들은 엄간집검회수를 높이고 예비부속품확보를 중시하여 그전보다 설비들의 가동률을 10%이상

### 라원기계련합기업소에서

라원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공화국창건 65돐을 자랑한 로력정성과 빛내인 그 기세로 힘차게 달려 9월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다. 계획수행기간 이곳 로동계급은 유압식굴착기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하였으며 탄광, 광산을 비롯한 중요대상들에 각종 굴착기부속품들을 계획대로 원만히 생산보장하였다. 련합기업소당조직에서는 생산대중이 감동되어 주주의 가슴에 소중히 간직하고 생활할 중에 철저히 구현해나가기 위하여 위한 선동사업을 혁신적으로 활발히 벌리었다. 소재보장을 맡은 신포항주철공장에서는 설비들의 가동률을 최대한 높여 유압뿔프소재를 비롯한 주물소재생산을 제때에 보장하였다. 현대적인 기계들로 장비된 유압기구장에서는 기계공들의

높이었다. 이 성과에 토대하여 광부들은 하루계획을 수행하기 전에는 현장을 떠날수 없다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불같이 살며 투쟁하여 맡겨진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고무분공장과 정머리분공장의 생산자들은 광부들과 헌신호에 신심적으로 힘이 높은 설비부속품을 보장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 보수부문의 로동자들도 헌건의 보수과제를 수행하여도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였다. 련합기업소에서는 호소성이 강한 직관전과 방출선으로 높은 광산이 증산투쟁으로 들끓도록 하면서 일생산 및 재재정확화사업을 더욱 짜고들여 광부들의 투쟁열의를 부추겨주었다. 골지의 철정광생산기지에서 이룩된 혁신정성화는 나라의 강철생산을 늘이는데 적극 이바지되고있다.

### 라원기계련합기업소에서

라원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공화국창건 65돐을 자랑한 로력정성과 빛내인 그 기세로 힘차게 달려 9월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다. 계획수행기간 이곳 로동계급은 유압식굴착기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하였으며 탄광, 광산을 비롯한 중요대상들에 각종 굴착기부속품들을 계획대로 원만히 생산보장하였다. 련합기업소당조직에서는 생산대중이 감동되어 주주의 가슴에 소중히 간직하고 생활할 중에 철저히 구현해나가기 위하여 위한 선동사업을 혁신적으로 활발히 벌리었다. 소재보장을 맡은 신포항주철공장에서는 설비들의 가동률을 최대한 높여 유압뿔프소재를 비롯한 주물소재생산을 제때에 보장하였다. 현대적인 기계들로 장비된 유압기구장에서는 기계공들의



자재의 힘으로 발전소인제쌓기공사를 끝낸 영예와 긍지 드높다. -원산군민발전소건설장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 평양건축종합대학창립 6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평양건축종합대학창립 60돐 기념보고회가 9월 30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와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권성호국가건설감독장, 동정호건설경제공업성, 강영수도시건설성, 관계부문의 일군들, 대학교직원, 학생들, 졸업생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평양건축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최태복동지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 창립 60돐을 맞는 평양건축종합대학의 전제 교직원, 학생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었다. 축하문은 평양건축종합대학의 60년력사는 주체적건축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바치신 선배위인들의 불멸의 력사이며 시대를 대표하는 기념비적건축물로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만천하에 파시한 긍지높은 력사 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42(1953)년 10월 1일 북소 대학을 창립하여주시고 여러차례에 걸쳐 현지에 나오시어 교수교양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의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면서 대학사업을 걸음걸음을 손잡아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현 실발전의 요령에 맞게 대학을 건설부문과 도시경영, 국토관리, 환경보호부문의 인체들을 종합적으로 양성하는 전당도를 발전시켜주시고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의 설계를 통해 맡겨주시는 최상의 믿음과 영향을 안겨주시었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대학의 교육사업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주시고 대학에서 창작한 수십건의 건축형성설계를 몸소 지도하여주시였으며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대학은 창립후 지난 60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라의 건축산업발전의 원동축으로, 건설과학의 최첨단을 돌파해나가는 건설과학연구중심으로 강화발전되어 주체적건축예술에서 자랑찬 성과를 올리고 있다. 당의 주체적인 건축미술사상을 구현하여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김일성군사연구원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지도서관, 평양민속공연,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 등 국보적가치를 가지는 건축물들의 형성설계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고 수많은 건축명작들을 창작설계하여 권위있고

관록있는 건축설계집단의 위력을 높이 떨치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당의 뜻을 받들고 강성국가건설을 믿음직하게 떠메고나가는 재능있는 건축인체의 대부대를 키워왔으며 사회주의조건의 슬기와 기상을 떨치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을 일떠세우는데 공헌한 평양건축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불타는 충정과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대학총장 배동일의 기념보고에 이어 부총장 홍성룡, 교원 비서관, 학생 조일선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지난 60년간 대학이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언급하고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대학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여 나라의 건축을 떠메고나갈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 애국의 마음과 고치생산을 늘인다

## 가을누에고치따기에 힘을 넣어

각지 고치생산사업소들에서 가을누에고치를 제때에 따들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날마다 성과를 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군적응운동으로 누에고치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벌리도록 하여야 하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펼쳐나선 잠업비단지도국 일군들은 뿔발민식제배를 실현하며 앞선 누에치기방법을 받아들여 고치생산을 늘이기 위한 조직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었다. 이와 함께 담당한 도와 고치생산사업소들이 나가 근로자들이 고치따기에 나서는

## 강냉이가을걷이에 력량을 집중 활해북도안의 농촌들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협동농장들에서 로력을 가을걷이에 집중하며 모든 운반수단들을 다 동원하여 가을한곡식을 제때에 실어들이고 날일탈기를 빨리 끝내도록 하여야 하겠다.》  
 도당위원회는 지도밑에 도에서는 협동농장들에서 모든 력량을 집중하여 강냉이가을걷이를 최적기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협동농장들에서, 군들의 가을걷이에 예견되는 날씨의 특성을 제때에 알려주면서 그에 맞게 강냉이가을걷이를 예견정기내밀도록 하고있다. 협동농장들을 맡고 내려간 위원회일군들은 농장일군들과 함께 강냉이포전들을 배정없이 돌아보면서 생육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본

데 기초하여 지대별, 포전별가을걷이날자를 바로 정하고 력량을 집중하여 그날계획은 그날로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된 틈틈이 대책을 세우고있다. 도안의 협동농장일군들은 포전들의 강냉이가 여름 상태를 따져가며 가을걷이일제계획을 세우고 해당 일군들의 책임성을 높여 포전별수확과관정을 정확히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협동농장들에서는 수확과관정이 끝난 포전들에 로력을 집중하여 가을걷이를 진행하고있다. 향진군들에서 강냉이가을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다. 군에서는 가을걷이전투의 모든 공정을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기술적지도를 앞세우면서 협동농장의 일군들과 작업반조급일군들이 일별, 순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집행하도록 조직사업을 간지게 하고있다. 룡천협동농장을 비롯한 식

정, 풍곡, 신상, 삼정협동농장들의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이 가을걷이전투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가고있다. 서흥군과 림산군의 협동농장들에서는 강냉이가을걷이 많은데 맞게 지원로력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매일 많은 면적의 강냉이를 가을하고있다. 사리원시를 비롯한 도의 다른 시, 군들에서는 협동농장들이 트랙터드림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소달구지를 비롯한 운반수단들을 총동원하여 그날 가을한 강냉이는 그날로 무조건 실어들이며 달려우거나 보관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고있다. 도의 협동농장들에서는 강냉이가을걷이성과가 확대되는데 맞게 탈곡기의 보수정비를 간지게 하고 예비부속품들을 미리미리 갖추어놓아 비가올때 지장이 없도록 하고있다. 룡천협동농장을 비롯한 식





